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최명수 도의원 “전남 장애인학생 선수 육성시스템 개선 촉구”

특수학교 운동부, 선수 발굴·육성 시스템 개선 요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명수 의
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일
제3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서 전남도내 장애인학생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안정적·체계적 선수 발
굴 및 육성 시스템의 제질 개선을 촉

구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학생 선수의 발굴
과 육성을 비롯하여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운동부를 육성해야 하
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나 전국대



교운동부는 없는 상황이고, 장애인 전

회 도 대표선수 선
발 등 특수학교 체
육활동 전반에 대
한 개선이 절실하
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내
8개 특수학교가 운
영되고 있지만 학
생수는 없는 상황이고, 장애인 전

문지도자 또한 없어서 단계별 훈련과
선수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의원은 “1교 1운동부를 육
성하고 이에 맞는 전문지도자도 배치
해야하며 전남체육중·고교에 특수
학급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
교육의 책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동등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서비스 지원업무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6일 출범

현재 7개 기관 위탁 운영중인 아동복지사업 전담 예정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아동서
비스 지원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

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
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오는 16일 출범
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
공기관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드림스타트), 자립지원 데이터베

이스 구축·운영사업(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 등 현재
7개 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아동복
지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
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 소
재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가
정위탁지원센터의 명칭은 각각 아동
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로 변경한
다.

개정안은 또 아동권리보장원의 임
원을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와 1명의 감사로 정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
립추진단장은 “시행령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이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아동복
지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광주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20주년 기념 토론회
광주시의회는 9일 오후 2시 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 여
성장애인 인권운동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오늘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자매, 2012년부터 8년째 공식 협찬

원두커피 전문기업 자매가 10일
개최되는 제8회 메타넷과 함께하
는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메타넷과 함께하는 장애인 바리
스타 대회”는 한국재활재단이 주최
하고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
관하는 행사다. 장애인들이 지역사
회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8년째 진행되고 있다.

자매는 이 대회를 8년째 후원하
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자매 마스

터즈 에스프레소’ 등 원두 전량
과 커피기구, 에스프레소 잔 등 볼
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상용 자매 대표는 “자매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올
해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운동을 이어간다”면서 “앞으로
도 커피업계에서 쌓은 노하우가 사
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쓰일 수 있
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자매회 대회 모습

중앙자활센터→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오는 16일 설립

정관·운영규정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
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가 오는 16일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
편·설립된다.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이 자활복
지개발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들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1월 중앙자활센터와 자
활연수원 등을 통합해 자활복지개발
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이다.
자활복지개발원 정관과 이사회,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
한 통합 정보전산망 구축·운영을 자

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 설립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
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